

나주교통 노사 갈등에 애꿎은 시민만 불편

노조 부분파업에 회사 직장폐쇄 나주시, 노사 합의 유도 노력

나주지역 대중교통인 나주교통의 노사 갈등으로 지연운행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노조측의 부분파업에 맞서 회사 측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나주시와 나주교통 노사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남 오전 5시를 기해 전국자동차노조 나주교통지부의 부분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무분별한 쟁의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폐쇄하게 됐다"며 "노조 파업의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이 아닌 해고된 전직 노조위원장의 복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폐쇄와 관련한 쟁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명을 한 조합원에게는 배차해주고 있다"며 "15명기량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노총 산하인 나주교통지부는 지난 6일부터 회사에 지급된 손실 보전금의 투명한 사용 요구,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부 노선 결행 등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또 회사 측이 불법 회차, 결행 등으로 최근 나주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특정 조합원만 징계하는 등 노조 탄압과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이 파업 조합원을 상대로 요청서 형식의 사실상 각서를 받으며 조합원 간 이간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노사 갈등으로 한노총 조합원 배차가 많은 999번 등 주요 노선의 차량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나주 영산포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까지 시계(市

界)를 오가는 이 노선은 15~20분 간격의 배차시간이 30분 이상 늘어지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가 이 버스업체에 지원해온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은 2016년 84억원에서 이듬해 118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8년 156억원, 2019년 166억원, 지난해 171억원에 달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에너지 취약 계층 바우처 신청하세요 화순군, 연말까지 접수

화순군이 2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 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에 드는 요금을 차감하거나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 6500원(하절기 7000원·동절기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하절기 1만원·동절기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0원(하절기 1만5000원·동절기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하절기 1만5000원·동절기 17만6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7월 1일~9월 말)와 동절기(10월 6일~내년 4월 말)로 나눠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농업용 드론으로 스마트 농업시대 이끈다

강진군, 올해 4000만원 투입 지역 농업인에 드론 4대 지원

강진군은 대규모 벼·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을 지원한다. (사진) 농업용 드론은 벼·밭작물, 비료와 제초제 살포 등 손이 많이 가는 분야에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적기 공동방제로 고품질 쌀 수확이 가능하다. 1ha 면적의 논을 10분 만에 방제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2017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무인헬기 4대, 드론 24대 등 총 28대의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 드론 4대를 지원한다. 드론 1대당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다. 지금까지 2대가 공급됐으며, 나머지 2대는 28

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업용 드론 외에도 올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11대, 소형농기계 356대, 중대형 농기계 69대, 여성친화형 전가운반차 41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50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승연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드론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소·생산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복지서비스 한 곳서' ...장성군, 가족센터 착공

80억 들여 지상 3층·지하 1층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

장성군이 다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성읍에 추진하는 '가족센터'가 최근 건축 디자인을 확정짓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영천리에 들어설 '장성군 가족센터' (조감도)는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3040㎡로 건립된다. 이 센터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여성회관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복지기관을 한 곳으로 모은다.

군은 그동안 여성회관과 가정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각각 1973년과 1983년에 시설이 건립돼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맞벌이, 다문화, 미혼모, 한부모, 조손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센터 건립이 절실했다. 현안 해결에 나선 군은 지난해 7월 다목적 기능의 가족센터 건립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건축기획업무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끝에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최향식(가운데) 담양군수 등이 20일 담빛문화지구 준공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담빛문화지구 인구 유입·세원 증가 기대

준공 기념 식수 행사 열어

담양군은 20일 담빛문화지구 준공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대에 약 127만㎡ 규모로 조성된 담빛문화지구는 2015년 양우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사업을 준공했다. 현재 단지 내에 공동주택인 680세대의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이 100% 분양돼 현재 612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772세대의 단독주택 부지에 163세대가 입주하거나 건축 중으로 단지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담빛문화지구 조성으로 174억원의 지방세 신규 세원이 증대돼 2020년 지방세 결산액이 2019년 대비 37.2%가 증가했다.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 4월 기준 인구수가 4만6624명으로 작년 말보다 344명이 증가했다.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덕 새꿈도시 조성사업 등 8000여 세대 규모의 크고 작은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 '함평군 브랜드관' 연중 운영

함평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단순 온라인 판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쇼핑몰 내 '함평군 브랜드관'을 연중 운영한다. 또 함평자동차극장 등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판매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2주간 신세계 쇼핑포털 SSG.COM과 함께 '함평먹거리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기획전에는 최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조생양파 등 관내 25개 농·축·특산물 생산농가가 참여해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함평자동차극장과 엑스포공원 야경 등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함평군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자체 쇼핑몰을 만들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시장 확대로 농·특산물 역시 온라인 판로 확보가 필수"라면서 "자체 쇼핑몰 구축과 함께 유명 쇼핑몰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